

— S-217 —

폐 결핵으로 오인된 기관지식도루 1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나승원 · 오동욱 · 홍상범 · 오연목 · 심태선 · 임채만 · 이상도 · 고윤석 · 김우성 · 김동순 · 김원동

서론 : 어른에서 기관지식도루는 대부분 기관지암이나 식도암에 의해 발생하며 양성원인(화학약품 음독, 협착 부위 확장수술, 이물 질의 흡인, 식도계설,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관지식도루는 서서히 진행되는 임상양상을 가지며 비특이적인 증상과 질환의 회 소성으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증례 :** 44세 여자 환자로 4일전부터 발생한 객혈을 주소 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비 흡연가였으며 내원 25년 전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항결핵치료를 1년간 받은 후 완치판정을 받았다. 이후 식사시 기침이 발생하였으나 치료 없이 지냈다. 내원 2년 전 객혈 및 화농성 가래와 기침이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상 우하엽 상구역에 불규칙한 종괴와 주위의 중심소엽성 소결절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 폐결핵 진단하에 표준 4제요법으로 1년간 항결핵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간헐적인 객혈과 화농성 가래가 발생하였고 항산균 객담도말검사와 배양검사는 여러 번 시행하였으 나 모두 음성이었다. 식사시 발생하는 기침이 지속되어 연하장애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소견으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지내던 중 객혈이 증가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소견 없었고 25년 전 충수절제술 외에 다른 수술력은 없었다. 이학적 소견 상 정상이었으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정상소견 이었다. 방사선 소견상 양측 중격동 및 폐문부에 다발성의 석회화된 림프절종대 와 우하엽 상구역에 공동성 병변과 주위에 중심소엽성 소결절이 관찰되었고 우하엽 기관지와 원위부 식도의 우측 사이에 누관이 의심되었다. 기관지 내시경상 우하엽 상구역에서 화농성 분비물이 관찰되었으나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다. 이후 식도조영술상에서 조영제가 원위부 식도의 우측에서 우하엽 상구역 기관지로 누출되는 것이 보여서 기관지식도루를 확진 하였다. 식도위내시경으로 상절치 30cm 위치에 누공이 관찰되어 섬유소아교와 hemoclip을 사용하여 막으려고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수술적 치료로 누공절 제술과 폐구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병리소견상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증상도 호전되어 항결핵제 투약 중단 후 퇴원하였 다. **결론 :** 어른에서 양성원인에 의한 기관지식도루는 드물며 활동성 결핵이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되었지만 본 증례와 같이 결핵 후유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 흡인과 기침 및 객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활동성 폐결핵으로 오인될 수 있으 므로 임상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 S-218 —

기관과 기관지 내 다발성 점막 병변을 동반한 Churg-Strauss 증후군 1 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광하 · 홍상범 · 심태선 · 임채만 · 이상도 · 고윤석 · 김우성 · 김동순 · 김원동 · 오연목

배경 : Churg-Strauss 증후군은 호산구와 관련되어 혈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기관지 천식, 말초혈액의 호산구증가증, 신경염, 폐침윤, 부비동의 침범소견을 보이고, 폐조직 소견 상 호산구 침윤을 동반한 혈관염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Churg-Strauss 증후군 환자에게서 기관지내시경 상 기관과 기관지의 점막에 다발성으로 궤양 소견 및 점막 조직검사 상 호산구 침범을 보고한 예는 없었다. 저자들은 Churg-Strauss 증후군의 기관 기관지 침범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3세 남자환자가 4주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및 흉막통증을 주소로 외부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단, 치료 받았으나 임상적 호전 없어 본원 으로 전원 되었다. 과거력 상 2년전에 호흡곤란으로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받았고, 코막힘 증상으로 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불규칙적 으로 치료 받고 있었다. 내원 당시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14000/mm³ (호산구 6636/mm³) 이었고, 입원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양측 폐야의 늑막하 구역에 다발성의 반점형 경화 및 간유리 증가 음영을 보였다. 기관지내시경 소견상 기관부터 양측의 각 엽의 구역 기관지까지 다발성으로 점막에 부종과 발적을 동반한 백색의 궤양 및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에서 호산구 침윤이 확인되 었다. 기관지 폐포세척액 검사상 백혈구가 110/mm³ (호산구 54/mm³) 이었고,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폐실질에 호산구 침윤 및 혈관 염의 소견이었다. 혈청의 Anti-neutrophilic cytoplasmic 항체 (ANCA) 는 음성이었다. 이상으로 Churg-Strauss 증후군으로 진단하 여 부신피질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이후 말초혈액 호산구의 감소 및, 투여 15일 후 기관지 내시경 추적 검사상 기관 및 기관지 점막의 병변의 소실이 관찰되었다. 이후 환자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감량하면서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고찰 : 본 예는 Churg-Strauss 증후군에서의 폐침윤은 주로 폐 실질에 호산구성 폐렴, 괴사성 혈관염 및 육아종성 염증의 형태로 발현이 되나 기관, 기관지의 점막의 병변으로도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례 이다.